한겨레 2004년 8월 26일 목요일

실험, 희망 만들기

아침햇발

지영선 논설위원

아주 신선하고도 중요한 실험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끝나지 않을 듯 맹렬한 더위 끝에 거짓말처럼 불어 온 가을바람 때문일까. 온통 악에 바친 듯 지겨운 다툼과 짜증 속에서 그 만큼 희망에 목이 마른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 하나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을 위한 모의재판이다. 이름도 삼엄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시민 사법참여의 수단인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의재판(!)을 해 본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지 않은가. 오늘의 재판을 위해 뽑힌 12명의 배심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그 흔한 '사회지도층 인사'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관내 각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로 2명씩 우선 5백여명을 뽑았다. 대한민국 선거권을 가졌다는 것이 유일한 자격인 셈이다. 그 중에서 배심원 안 하겠다는 사람 빼고, 사건과 관련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골라내고, 최종적으로 예비 배심원 2명을 포함해 14명의 배심원이 선정됐다. 이들이 재판관의 도움을 받아 유·무죄를 심판하게 된다. 검사와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이들 '보통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배·참심제 도입 검토 소식을 듣고 사실 내 안에서 일어난 첫 반응은 "그게 될까? 미국과는 사회적 배경이 다른데…" 하는 것이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재판을 맡기다니?.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연·지연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판단을 하겠나? 셋째, 우리처럼 '빨리빨리'가 몸에 밴 사회에서 매번 배심원 뽑고, 문외한인 그들이 알아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연속 몇주일에 걸쳐 느긋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이 새로운 제도를 살펴 보다가, 나 자신이 되지도 않은 편견에 푹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재판이란 판·검사·변호사의 '전문지식'에 맡길 일이요, 시민의 '상식'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맹신'이다. 이 무슨 비굴한 자기비하인가. 배·참심제의 도입은 재판에서 주인으로서의 시민을 신뢰하는, 그것을 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속도전의 사회에서 '인간의 속도'를 되찾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그걸 연습하는 모의재판이라니, 신선하다 할 만하지 않은가.

또 하나는 어제·오늘·내일 사흘에 걸쳐 경기도 양평의 한 호젓한 여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탄강 댐 갈등조정 회의'다. 99년부터 5년을 끌어 온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재하는 갈등해결 시범사례로 정해진 것은 지난 2월이었다. 근본적 해결이 안 된 채 갈등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로 갈등 당사자 대표들이 토론과 대화를 통해 풀어간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요, 연습이다.

이해가 엇갈리는 4개 당사자들이 대표를 내놓았다. 댐건설을 반대하는 상류쪽 주민, 찬성하는 하류쪽 주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도 하나의 당사자가 됐다. 각 3-4명씩의 당사자 대표들은 회의방식도 스스로 정한 뒤, 지난 넉달간 매 주 한번씩 회의를 했다. 아침 9시에 시작된 회의는 저녁 7-8시에나 끝나기 일쑤였다. 열띤 대화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책결정이 실무적 검토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내려지고,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뼈아픈 사실들이 드러났다. 또 반대 주민이나 시민단체 쪽의 논리나 대안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서로 확인한 뒤, 이제 각 당사자가 각자의 대안을 가지고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2박3일 마라톤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이 실험들이 '합의'또는 '성공'이라는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각자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했다는 것,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열린 대화를 통해 결론을 찾는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다. 한줄기 시원한 바람을 맞는 듯하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다. 아니다! 이런 성실한 노력들이 소중한 성공에 이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신뢰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ysji@hani.co.kr